

# 發表 및 討論要旨

## 제 1 회의

사회자 : 양성철

발표자 : 서대숙, 김창순

토론자 : 강인덕, 김남식

## 發 表

서대숙 : 이 논문에서는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다섯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기원면에 있어 지식인 주도로 시작되어 계급혁명의 성격을 띤 일본, 중국과는 달리,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혁명가 주도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민족해방에 목적을 두고 포괄적인 세력의 규합 및 연대가 가능했던 반면, 이론적 바탕이 희박한 단점을 지닌다. 둘째,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보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코민테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출발하여 많은 도움을 받지만, 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코민테른은 비현실적인 지시로 일관하게 된다. 또한 코민테른의 해체 이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소련은 극동보다 東歐에 주력하여 초기에 보였던 소련과의 연계는 소멸하게 된다. 셋째, 지도자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강력한 지도자를 얻지 못하고 구심점을 상실한 채 부침을 거듭한다. 철저한 이론가나 투철한 혁명가라기 보다, 낭만적 공산주의자였던 이들은 날카로운 현실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김일성에게 쉽사리 주도권을 내주고 만다. 넷째, 越北한 공산주의자들의 6.25 후 김일성에 대한 도전이 속칭으로 막을 내리며, 北韓에서 그나마 존재했던 조선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몰락한다. 다섯째, 現北韓政權은 한국 공산주의운동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들의 경력조차 인

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北韓은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주류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南韓 역시 그들의 운동경력 및 활동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자생적 운동으로서 실패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창순** : 본 논문은 한국 공산주의운동 전체과정을 통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던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그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찰하여 소련의 한반도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삼으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코민테른이 내렸던 당시의 일련의 지시는 한국실정도 잘 모르는 채 桌上에서 내려진 것이었으며, 한국 공산주의운동 자체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혁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결정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지시들은 비현실적이었고 성공가능성이 시초부터 희박하였다. 특히 1931년 10月 書翰은 한국의 勞農운동을 극좌로 내몰아 오히려 민족진영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日警의 검거선봉에 희생이 되는 결과만을 초래했던 것이다. 附言할 것은 오늘날 北韓이 내세우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이 이 당시 코민테른의 지시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討 論

**강인덕** : 서대숙교수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운동의 지속성 단절에는 견해를 같이 한다. 당시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실패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내 공산주의운동은 人的 구성에 있어 철저한 이론적 기반을 터득하였거나 전략전술에 능통한 인물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코민테른 지령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맞는 타협과 투쟁의 지시가 아니라, 좌파모험적 투쟁으로 일관하여 현실적용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아쉬운 것은 코민테른의 성격규명, 즉 과연 코민테른이 세계혁명의 완

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던지를 살펴 보아야 했다. 코민테른은 레닌이 공산주의 러시아 수호를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레닌은 혁명후 러시아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국가와 조약 및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 시베리아 韓人 공산주의운동의 실패도 이 과정 속에서 벗어난 현상이다.

또 하나는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이 抗日 民族運動史 속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논문에는 한국 공산주의운동이 김일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지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성격의 규명은 김일성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한국근대사의 보다 투철한 인식을 위해서도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김남식** : 우선 김창순선생의 논문에 대해 몇가지 보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공산주의운동과 코민테른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의 공산주의자는 코민테른과 연계를 맺지 않고서는 독자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지시에 따르고, 코민테른은 국내 공산당에 많은 간섭을 했다. 그러나 제 1차, 2차 인터내셔널과 3차의 코민테른은 성립배경이 다르다. 코민테른은 러시아 혁명 성공 이후의 공산주의 양양기에 혁명수행자가 주체세력이 되어 소련에 본부를 둔 조직이었다. 그리고 세계혁명 추구의 방편으로, 중앙과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지구당을 각국에 설치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지도자는 부하린(Bukharin), 지노비에프(Zinobiev) 등으로, 이들은 자신의 전략 건설이 실천적으로 검증된 상황 속에서 그 처방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코민테른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국가에서 공산주의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건설책이었다. 이들은 계급혁명을 강령으로 내세웠는가, 아니면 민족해방을 내세웠는가? 코민테른의 한국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지시는 이 문제와 결부시켜 살펴보아야 하며, 또 중국의 제 1차 國共合作의 사례도 관련시켜 보아야 하겠다.

둘째, 공산주의사상이 당시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정

착가능한 사상이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가부장적 인간관계 및 유교문화라는 극히 보수적 성향의 한국 문화패턴에 평등관계를 골간으로 하는 급진적 공산주의사상이 정착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시된다. 한편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산업발달은 극히 미미한 상태로 1,600여개의 공장에 4만~5만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단일계급으로 혁명추진세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과연 노동계급 주도의 공산혁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 중국의 경우 李立三 노선이 실패로 끝나고 毛澤東의 농민전술이 성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사례이다.

셋째, 2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들은 국내 상황을 올바로 고려하지 못한 코민테른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용한 채 독자적 노선의 개발에도 첫점을 보이고 있다. 일례를 들어 해방후 박헌영의 8월테제를 보면 당시 혁명을 부르조아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수행방법에는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었다. 부르조아 민주혁명은 생산수단 소유관계는 변동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은 토지국유화, 산업국유화 등 프롤레타리아 혁명단계에서야 실행될 정책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소련, 미국, 영국, 장개석의 중국을 모두 진보적 민주국가로 규정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해방후의 노선이 이 정도이니 1920년대에는 더 열등한 이론적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굳은 확신과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들의 구체적 사상, 전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식민지국가에서 민족해방투쟁이라는 과제해결에 있어 공산주의운동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누구도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 같다.

시베리아 韓人社會 고려공산당의 해체는 단순히 소련의 국내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보기 보다는 코민테른이 채택한 세계각국 지부당 설치를 위한 발전적 해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서대숙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코민테른의 지부당 설치 일환으로 1925년 4월 17일 조직된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은 결성당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모스크바에서 교육받고 조선공산당에 배출된 인물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며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는가? 또 이들과 코민테른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20년대 공산주의운동은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띠고 투쟁이 전개되었는가? 실제로 노동자·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면 구체적 예로 들만한 사례는?

答 辨

김창순: 해의 공산당은 「일크스크」과와 상해파 해체후,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비로」로 변신한다. 「고르비로」에서 파견된 일크스크系의 정재단, 이재봉은 23년 봄 입국후 국내 유력자와 교섭하여 「고르비로」를 지하에 결성한다. 이 조직은 朝共 창설의 한 기반이 된다. 그 이상의 직접적 관계는 없다.

20년, 30년대의 勞農運動 전개는 한국의 민족운동 전개단계와도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민족운동의 첫째 과제는 조직정비에 있었다. 실질적 노농운동은 조직정비의 완수 후에 전개될 성질의 것이었다. 일본, 모스크바 출신에 의해 3.1운동을 전후하여 꾸준히 전개되는 공산주의운동도 이같은 맥락에서 조직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24년 4월 朝鮮 勞農總同盟의 결성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실천적 투쟁의 전개라는 면에서 공산당은 日警의 끊임없는 검거·추적 속에 구체적 강령이나 원칙을 가질 틈도 없었다.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르는 지하상황 아래 조직적·법국가적 노동운동은 조직체계 상으로도 불가능했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없다.

코민테른의 작곡 지부당 결성지시는 레닌과 西歐 사회주의정당의 투쟁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레닌은 당시 西歐 사회주의정당을 기회주의적이라고 규탄하며 소위 유사 공산당 척결지시를 내린다. 공산당은 1국 1당 원칙 밑에 중앙집권적 당으로 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에게 또 하나

의 시급한 문제는 시베리아 장악 후 일본의 직접적 개입구실을 없애는 것이었으며, 러시아 내에서의 韓人 처리문제도 이때 제기되어 나타난다. 이 논문은 러시아 내에서의 韓人 공산당 해체가 분파투쟁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세계혁명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서대숙 : 1925년 朝共 창립단계에서 코민테른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朝共과 별 관계도 없다. 28년 9월 코민테른 제 6차대회에 조동호가 朝共대표로 참석하여 공식적 인정을 받는다. KUTV의 한국 유학생 숫자는 대략 2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대학의 교수들도 한국인이 많았다(김성택, 주친송 등). 이 대학 출신자들 중 이름있는 사람을 몇몇 들면 조용암, 김명식, 고명자, 김조이, 권오직 등이다. 해방 후 북한으로 들어오는 KUTV 출신 중에는 오기섭이 가장 유명하다. 오기섭은 직업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김일성과 대립하다 숙청되는데, 그는 공산국가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국가권력과 대항하고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근 폴란드 자유노조운동과 같은 주장을 폈다는 점이 주목받을 만하다. 또 초대 소련대사인 주연하도 KUTV 출신이다.

1920년대에는 조직적 노동운동이 없었다. 30년대에 접어들며 나타나는 데, 함경도에서 있었던 동원 노조운동, 평양고무공장 노조운동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0년대에는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후 참석자 전원에게 질문이 개방되었다.)

최상룡 : 우리나라의 맑시즘 수용도 이제 60년에 달한다. 혁명가, 실천가와는 별도로 대표적인 맑시즘 이론가로 누구를 들 수 있겠는가? 또 당시 KUTV 교수들 중 맑시즘의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서대숙 : 많은 문헌들이 있으며 특히 박진순의 글이 많다. 전부 露語로 되어있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저작만을 출간

하기 때문에 북한에도 소개되지 않았다.

**김창순** :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서는 공산당원들에 대해 공산주의 이론을 묻는 시험을 치렀다. 이 답안지가 남아 있는데 그 중 임현일의 답안이 아주 훌륭하다. 그는 慶應大學 2년 중퇴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상적 면에서는 福本和夫 계열에 속한다. 또 허헌, 레닌적 성향을 지닌 김태일의 글도 훌륭하다. 박헌영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답안을 보면 그 방면에 별로 공부한 듯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모스크바 대학 정규출신으로 해방후 귀국한 한빈 역시 비교적 이론을 갖춘 인물에 속한다.

**이홍영** : 지식인 주도로 시작하여 먼저 지식인이 혁명화되고 게릴라 요원을 하층부에서 충원한 중국과 달리, 한국 공산주의는 혁명가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원인인지는 몰라도 중국 공산당에게 문제되었던 것들이 한국에는 제기조차 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毛澤東을 설명하는 여러 학설들 중 그가 국내 계급투쟁과 반식민지투쟁을 적절히 조화 해결한 것이 성공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毛의 게릴라 이론은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정당화되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공산당에게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는가? 중국은 抗日戰을 시작하며 친일파를 국내의 계급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지주층을 친일파로 규정한다. 한국에서 공산운동가들이 계급분석과 친일파를 연결시켜 연구한 자료가 있는가? 또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에 내렸던 일련의 지시는 중국 공산운동의 상황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서대숙** : 한국 공산주의운동에서는 이론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론가도 없었고 이론도 없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철학적 연구의 소산이 아니라, 反中·反蘇를 경험하며 1960년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친일파의 계급적 분석은 KUTV 교수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KUTV 교수들은 거의 소련으로 귀화하고 쓸쓸한 최후를 겪었다. 이들은 후세 공산주의운동의 이론에 대한 지침서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코민테른의 지시 내용이 중국상황을 토대로 변화되었지 않는다는 지

적에는 반대한다. 코민테른이 내린 지시는 중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한국실정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작성·전달되었다. 28년 12월 배제는 일본인, 러시아인, 중국인 2명 등 모두 4명이 작성했지만, 그 중 한국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30년에 전달된 쿠스넨 테제(Kuusinen's Theses)를 본다면 쿠스넨은 핀란드 공산주의자로 한국실정에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당시 쿠스넨은 한국 공산주의 실패원인이 당파투쟁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파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산당 자체도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해방후 한국공산당의 파벌투쟁을 20년대 30년대 파벌의 연장 결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해방 무렵이 되면 20년대 30년대 파쟁의 주류는 이미 소멸된 후였다. 이 파벌들이 살아 남았다면 오히려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성공가능성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쿠스넨은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테제를 작성하는데, 이 세개의 테제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 중국에 대한 테제는 현지 중국인의 조언을 많이 받아들여 작성했고, 일본의 경우는 福本和夫를 직접 소련으로 불러들여 만든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었고 현지인의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공통점은 세 테제 모두 각국의 현실과 어긋나 비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이홍영** : 중국에도 공산당의 파벌은 존재했다. 毛澤東—李立三의 대립은 개인적 차원의 성격도 띠지만 중국혁명의 전략·전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25~28 사이 明滅했던 4개의 공산당이 어떤 이론적 차이 또는 별개의 실천강령을 가지고 있었는가?

**서대숙** : 의견차이는 없었다. 1차 공산당이 신의주사건으로 붕괴한 후 나타난 강달영의 2차당도 아무런 방향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차당 때 약간 방향수정이 가해지며 합작운동도 모색해 보지만 곧 붕괴된다. 차금봉의 4차당은 노동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코민테른이 중국의 李立三에 대해 내린 공장파업은 장개석의 진압으로 실패한다. 중국 지령은 실패한다. 한국의 경우 소련에서 지령이 와도 이미 당 자체가 붕

피된 후였다.

**김창순** : 나는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20년대와 30년대를 서로 다르게 본다. 25년 4월 조선공산당 결성으로부터 28년 12월 재건지령까지 3년 6개월 동안 공산당은 좌우파의 합작운동 등 비교적 좌익 색채가 덜한 노선을 채택하지만, 30년대에 들어서면 좌익투쟁, 적색 노농투쟁으로 전환한다.

코민테른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지시가 다른 것은 양국이 처한 상황을 각각 다르게 보았던 탓이다. 중국은 반식민지 해방투쟁으로 성격규정을 하였지만, 한국은 완전 식민지상황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에는 민족혁명을 통한 공산혁명으로 지시를 내리며, 우선은 국민당 중심이 될 것을 규정한다. 반면 한국에는 공산당이 지하당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좌익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합법적 국민단체인 新幹會 등에 지하당원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한다.

**이병주** : 서대숙교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중국은 지식인 시발, 한국은 혁명가 시발로 공산주의운동을 규정하는데 과연 이같은 구분이 타당한 것인가? 즉 中國의 陳獨秀, 李大劉 등은 지식인이었지만 구국의 방향을 러시아혁명에서 찾고 혁명으로 전환하며 그들 자신도 혁명가가 된다. 한국의 경우 김재봉 등의 초기 공산주의자들 역시 분명 지식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시 지식인들 중 일부가 다른 많은 사상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산주의에 경도했는가? 당시의 지적 분위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930년대 이들은 좌익작가동맹을 결성하고 있었다. 단순히 이론적 업적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하다.

**서대숙** : 지식인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겠지만, 廣意로 본다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공산당 창당요원은 본업이 학문이었고 실천가로서는 역량이나 활동이 미흡했다. 반면 한국의 창당요원은 본업이 혁

명이었다. 물론 지식인 범주에 넣고 볼 수는 있지만 職業이라는 면에서 보다 세분시켰던 것이다. 혁명이 시발이라는 점은 장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단점은 투철한 이론적 기반이 없어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혁명가였기 때문에 소련이나 코민테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장점도 지닌다.

공산주의운동의 지적 풍토는 1930년대에 접어들며 낭만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한국에는 공산주의의 지적 기반, 즉 무산자에 대한 배려라는 풍토가 없었다. 林和 등의 문인들이 공산당 기관지 朝鮮之光에서 무산자의 아픔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친다. 그나마 이들은 직접 공산주의 운동에 나서지 못하는 낭만적 공산주의자였다.

양성철 : 이것으로 제 1 회의를 끝마칩니다.

## 제 2 회의

사회자 : 서대숙

발표자 : 김학준, 양성철

토론자 : 안병영, 고성준

## 發 表

김학준 : 이 논문은 해방 3년의 시기에 걸쳐 남북한 좌파지도자들의 공산주의관을 고찰해 보았다. 분류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남한의 좌파지도자로는 여운형과 박헌영을 꼽았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는 여운형은 계급정당보다 대중정당 지향의 통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좌우익의 제휴, 이데올로기의 융합을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사회주의 및 통일의 실현을 통한 급격한 사회변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박헌영은 8월테제에서 보듯 당시 혁명을 부르조아 민주혁명단계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및 산업시설의 국유화라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계의 동시적 수행을 주장한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기계적으로 도

입하였지만 자신의 기반이 남한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북조선혁명」 노선에 맞서 「남조선혁명」 노선을 강조한다.

항일 게릴라 투쟁을 시발점으로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한 김일성은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맑스-레닌적 성향보다 혁명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특히 항일투쟁기에 행해진 그의 연설은 주요 대상을 좌파지식인이 아니라 일반대중으로 잡고 있었으며 공산주의이론에 대한 이해도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있어서는 공산혁명보다 민족해방이 일차적 과제였다.

반면 연안파의 김두봉은 毛澤東의 신민주주의론에 따라 新民黨을 창당하는등 전체적으로 毛의 노선을 많이 따르며, 김일성 보다는 맑스-레닌주의에 많이 경도된 일면을 보여준다.

**양성철:** 이 논문은 한국 공산주의운동 및 공산주의자를 맑스-레닌주의로서의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라는 일반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산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도그마, 공식적 이데올로기, 이론과 실천의 간극이라는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한국 공산주의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측면에서의 한국 공산주의도 여타 공산주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공산주의는 유일의 정치교리로 확립되어 그 이론이 주장했던 자유평등적 의양과는 달리 일체의 다른 정치이념이나 이론을 불허하고 있다. 둘째 혁명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 전개양식을 고찰하였는데 이 측면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불법적 운동, 지식인 주도의 소수중심 운동, 혁명후 극소수 지배체제라는 면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권력장악방식은 자국이 처했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소련의 경우 coup 비슷한 형태의 권력장악이라면, 중공은 장기 게릴라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소련점령군과 김일성 게릴라 투쟁의 합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이 보이는 괴리를 지적하고, 정치영역에서의 이념적 관용만이 남북 대치상황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 討 論

**안병영** : 김학준교수는 해방후 남북한 좌파지도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중심으로 4명의 인물을 다른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정치가들의 문집이나 잘 닦여진 글이 없어 사상적 규명은 그들의 정치적 행위나 짧은 대담문 속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순수한 사상적 입장의 규명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이론은 체험과 이론적 논박을 통해 내면화되는 것이 여타 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모습이지만, 日帝治下 한국 공산주의의 경우 이론적 업적이나 논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적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수사적 문구만으로는 사상파악에 무리가 따른다.

양성철교수는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다. 물론 통괄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맑스사상은 분명 급진사상이지만 그 안에는 민주적 요소와 전체주의적 요소가 혼在되어 있다. 레닌은 후자를 증폭 정착시킨다. 레닌주의를 동양적 전체주의 속에서 변형된 맑스주의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소멸론은 레닌에게 오히려 국가극대화론으로 나타난다. 한편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생성, 소멸, 붕괴에 대한 이론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별 언급도 없고 그에 대한 명확한 영상의 제시도 없다. 그러나 혁명후 공산사회의 구체적 영상제시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한 레닌은 이미 확립된 체제의 관리자로서 체제존속의 강조로 옮겨가기 때문에 맑스와는 필연적으로 사상적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맑스와 레닌의 사상은 보다 엄격한 차원에서 분리연구되어야 한다.

**고성준** : 김교수는 시기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몇몇 인물로 한정시킨 반면, 양교수는 개괄적 시기와 범주로 다루었다. 김교수는 여운형을 사회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김일성은 혁명적·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로 보고 있

다. 두 사람은 사상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여운형의 자본주의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맑스-레닌주의자로서의 혁명적 활동 속에서 내렸다. 그가 東北抗日聯合軍으로 활동할 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자로서의 전략전술이나 사상적 이해도를 어느정도 지니고 있었는가?

양교수는 공산주의를 몇개의 유형으로 大別하였지만 산업사회의 이행에 따라 공산권도 변화를 겪고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총괄적 분류가 그대로 맞아들지 의문이다. 또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북한의 혁명적 요소가 순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념적 관용의 경우 서독에는 공산당도 합법화되어있다. 우리도 서독과 같이 관용의 범위를 넓혀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이흥영** : 김교수는 김일성이 동북연합군에 속해 있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林彪가 지휘하던 중국공산당의 동북연합군을 말하는지, 아니면 한국인의 게릴라 조직으로서 별개의 동북연합군을 지적하는가? 또 임포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양교수가 말하는 정치와 이념의 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념의 국가의 분리? 혹은 정치에서 이념의 제거를 뜻하는 것인가?

### 答 辨

**김화준** :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자로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상당히 알기 어렵다. 공산주의운동가의 글이 우선 보존되어 있어야 그들의 사상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이해도를 알 수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

**양성철** : 기본적으로 맑스를 이론가라고 한다면, 레닌은 실천가이기 때문에 양자의 질적 차이와 구분의 필요성은 분명 인정하지만, 이 논문의 쫓걸

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김일성의 저작은 과연 그 자신이 직접 저술했느냐는 점에는 많은 의문이 남지만, 어떤 사상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북한은 철저한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혁명적 요소의 순화는 어렵다고 본다. 이념적 관용의 실천방안을 한국현실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정치와 이념의 분리는 국가와 이념의 분리를 가리킨다.

서대숙: 東聯軍은 林彪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당시 林은 大長征 도중에 있었고 그의 東北軍은 43년 이후에 결성된 것이다. 이미 만주 일대에 존재하고 있던 紅軍 31軍을 계승하여 양징우라는 중국인이 홍군 32군을 조직하였다(1933~34). 동북항일연합군은 여기에 속해 있었다. 이 조직은 처음 6군이었으나 후에 11군까지 확대되고 조직이 방만해지자 3路軍으로 개편한다. 1로군의 지휘관은 양징우, 2로군은 주박중, 3로군은 장수찬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1941년에 패망하여 주박중만 살아남아 잔류병력과 하바로스스로 이주한다. 그중 2로군의 6사 사장이 김일성이었다. 당시 2로군 군장들 중의 한명인 외정민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7차 코민테른에 참여한 후 김일성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41년 3월 그가 죽자 김일성도 소련으로 이주한다. 그러던 김일성이 45년 이전에 공산주의자였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東聯軍은 분명 공산군대였지만 김일성은 공산주의에 대해 별로 아는 바 없었다. 45년 이전에 그가 썼다고 하는 논문은 모두 위조이다. 45년 이전에 썼다는 논문들이 1967년 이후에야 출간될 뿐 아니라, 최초의 논문이라는 1939년의 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때 그의 나이 18세였다. 전혀 날조된 것이다. 또 그가 在滿祖國光復會 會長을 지냈던 시절이나, 게릴라 활동 시절의 기록을 보아도 공산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조국해방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해방후 북한에 들어와 행한 첫연설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공산주의 성향은 불확실하지만 민족주의적 요소는 뚜렷이 나타나 있다.

여운형은 독립운동에서 과대평가된 인물이다. 실제로 별반 활동업적도

없고 일본인에 많은 동조를 하였다. 그의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통일의 원래한 구상이 아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북한의 연안파, 임시정부 어느 계열에도 끼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이들이 입국하기 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주도권을 선취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홍명** : 양교수의 논문은 원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맑스—레닌주의, 맑스와 레닌이라는 일반적 선에서 전개될 뿐, 남북한공산주의의 질적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해방전 우리 공산운동이 지녔던 이론적 요소의 충분한 검토가 아니겠는가? 나아가서는 해방 후 동북아시아의 외적 요인, 예를 들면 소련의 경우 戰時 공산주의와 관련시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가 갖는 특수성을 보다 고려했으면 한다.

**金교수**의 논문에서는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상황을 어떻게 분석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전략전술적 입장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대숙** : 이상으로 제 2 회의를 마칩니다.

### 제 3 회의

사회자 : 이광린

발표자 : 김윤식, 유재천

토론자 : 김학동(不參), 박철휘, 원우현

#### 〈發 表〉

**김윤식** : 이 논문은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충격을 일제 식민지기간과 해방空間의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맑스주의가 한국문학에 미친 충격은 조직문제와 내적형식이라는 두 측면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우리 문학사에서 문학이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들의 문학 예술은 사상이나 정치 아래 예속되어 전개된 것이었다. 내적형식의 창조는 시와 소설의 분야에서 각각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이를 기반으로 리얼리즘의 수용논의가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논의가 식민지라는 특수상황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방이라는 정치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맑스주의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와 별 관련없이 전개되었고, 이는 맑스주의가 하나의 외래사상, 권위사상으로 작용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유재천** : 본 논문은 일제시대의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던 논설을 통해 한국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수용방식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관련된 어떤 개념, 주장들이 신문에 소개되었는가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족해방, 대중계몽의 성격을 띠고 창설된 한국의 신문들은 대중에게 새로운 것을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현실개혁 의지가 강한 진보사상을 소개한다. 특히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로 언론이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됨에 따라, 급진사상의 소개도 큰 제약을 받지 않게된다. 1922~1925년의 4년에 걸쳐 공산주의운동 관련논설이 가장 많이 소개되며 주로 노동운동, 맑스주의 또는 사회주의사상의 소개, 대표적 사회주의자의 인물소개 등이 주류를 이룬다. 또 1929년부터 점차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공산주의운동과 관련된 논설이 감소되는 대신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논설의 구체적 내용분석을 통해서 1923년부터는 맑스주의나 사회주의 자체의 핵심을 파악하는 경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기관지를 소유하고 이를 통해 지적 활동을 벌이기에는 日警의 검열과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부르조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당시의 높은 문맹율(인구의 70~80%), 신문을 구독할 수 없는 경제수준(인구의 7~8할이 농민이며 이들도 대부분 소작농)을 미루어 볼 때 사회일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討 論

**박철희** : 맑스, 엥겔스는 문학에 대해 전문적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예

술에 대한 발언은 자주 나타난다. 이를 변형 확대한 것이 공산주의문학으로 레닌, 스탈린에 와서 구체화된다. 우리 문학에서 프로문학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문학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 우리 문학인들이 맑스주의 사상을 직접 문학에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관념성 보다는 현실성, 예술성보다는 민중성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년대 또는 그 이전 문학이 일관하고 있는 가난 빈궁의 주제가 이미 맑스주의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폭을 20년대 이전과 해방 후에까지 연장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역시 조직문제에서도 프로문학을 이 조직에 직접 참여한 사람, 또는 동조했던 사람을 넘어 빈궁문학을 다룬 많은 문인들까지도 함께 포함시켜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문학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면을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전통의 실화문학, 민간전승문학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지? 또 소설의 경우 매개인물은 이기영보다 앞선 최학승, 현진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논문은 맑스주의의 문학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았지만 긍정적 영향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 주체성의 강조, 작은 사회적 행위를 보다 전체적 관점에서 비판·검토하는 태도는 긍정적 평가를 내려야하지 않겠는가?

**원우현** : 유교수의 논문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로 묶어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통괄성의 기반개념은 무엇인가? 그러한 기반개념의 연결성이 주어진다고 해도 공산주의와 관련된 것을 사회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동일시할 상황적 특징이 있는지? 사실은 선형적, 가치부여적, 당위적인 내용이 많다. 이 사실의 분석이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냐는 물어는 또 다른 차원에 속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규범적 관계와 제도적 관계의 동시적 분석이 있어야 의미가 올바르게 파악된다. 사실만으로는 공산주의 수용과정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 답을 얻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품게된다.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양성철** : 프로문학은 빈궁 가난을 많이 다루었다고 하는데 춘향전이나 허생전에도 빈궁, 제급성이 보인다. KAPF 조직체 이전에 나타난 전통적 빈궁문학과 KAPF 조직문학에서 나타나는 빈궁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황성모** : 아시아의 공산주의 수용과정에는 러시아혁명의 성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존체제의 타파라는 성공적 사례가 일제하 현실부정을 실현시켜주는 유일사상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작용했던 것이다. 이 점은 문학에도 예외는 아니다. 프로문학은 반항과 비판이 발생원천이지만 그같은 요소는 홍길동 등의 전통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반항이 조직적으로 심화되어 문학에 반영된 것을 프로문학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적 내용을 얼마나 문학에 반영했을까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프로문학가는 거의 고등교육과정을 일본에서 마치는데 이들이 습득한 공산주의이론은 일본 노동운동이나 공산운동의 지류의 성격을 띤 것들이었다. 프로문학에 국한시켜 말한다면 공산주의 수용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활동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 答 辯

**김윤식** : 황교수의 지적대로 프로문학가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얼마나 정확히 받아들였느냐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사회주의 문학이론인 리얼리즘은 소련에서도 1934년에야 그 정의가 내려진다. 20년대 소련에서는 맑스주의와 형식주의(formalism)의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25년까지도 형식주의가 우세하였다. 34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이론적 표류기라고 볼 수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루카치(Lukács) 미학이론은 1936년에 와서야 소개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인만큼 우리 측에서도 이론정

립이나 정확한 이론수용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박교수가 지적한 여러 문제 중 프로 문학의 긍정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프로문학이 우리 문학에 끼친 공적은 크다. 이광수도 프로문학 자체는 싫어했지만 그 공적은 분명 인정하였다. 그러한 공적들로 공동체문제, 평등문제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전위적 측면에서의 공적은 별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보수주의가 존재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부정으로서 전위주의가 존재한다. 프로문학도 이러한 전위주의의 일종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프로문학의 전위적 경향에 대해 보수문학이 하나로 계속되는 모습도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프로문학이 수용했던 공산주의사상과 현실문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문학에 전개되었느냐는 것은 부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다. 급진사상의 일종인 맑스주의가 과연 사회경제적 발전과 분리된 채 사상만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속에서 전개되는 사상이다. 그렇다면 1920~30년대 우리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맑스주의 문학이론이 수용되어 전개될 단계가 아니었다. 우리의 경우 사회주의 문학이 사회경제적 토대와 연결되어 논의될 수 있는 시대는 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념으로 존재하는 과거사상이 70년대에 와서야 사회문제의 핵심과 연결되는 것이다.

유재천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적 구분은 꼭 필요하지만 그 당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맑스주의가 개념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 논설은 공산주의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사회주의나 무산자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논문은 어떤 류의 사회주의가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또 당시의 표현법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공산주의 수용에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신일보 등 여타 신문이나 잡지의 분석을 통해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사실과 현실의 관련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실이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논평을 말한다. 이 논문은 사실 중 노동운동, 공산주의에 관련된 것들만을 다루었다. 당시 사실의 특징은 요즘 기획기사 성격의 연재가 많았다는 점이다. 기획기사는 곧 그 신문이 역점을 둔 측면이다. 아울러 사실은 그 시대의 주된 현실문제를 다룬 것이라 보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광린**: 신문이 그 당시의 문제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영향도의 측정에 있다. 유교수는 영향도를 높게 보지 않았다. 윌슨의 14개조항은 매일신보에 약간 실렸을 뿐이지만, 3·1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문맹률이 높고 신문발행부수가 적었기 때문에 영향력도 낮다는 등식의 성립에는 의문을 표한다. 어느 한 사람이 읽고 전달해줄 수도 있고, 돌려 읽을 수도 있다. 또 문맹률의 경우 전통적으로 서당 등의 구식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50%정도로 잡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친다.

#### 제 4 회의

사회자: 안병준

발표자: 曹伯一, 王爾敏, 정인재

토론자: 신승하, 길희성

#### 發 表

**曹伯一**: 한 국가의 발전은 반드시 지속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올바른 경로를 걸을 수 있다. 지속성은 전통문화와 경험의 연속성 및 중시를 말하며 이는 사회와 정치의 안정을 유지시켜 준다. 변동성은 문화의

용화와 새로운 창조를 중시하며 한 사회를 새로운 요구에 적응시키도록 만든다. 이들이 결합된 사회는 진실하고 앞으로 다가올 발전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1840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인의 목표는 서방문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전통문화의 기초 위에서 근대화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수용도 근대화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공산이념의 극단성과 전통 중국문화의 중용은 서로 합치될 수 없는 성격의 이념이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후 정치적 성격이 다른 발전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의 기치를 들고나왔을 때는 실패했지만(江西 소비에트 운동, 毛의 중국개조운동 등), 민족주의를 표방하였을 때는 중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국공합작의 抗日民族統一戰線 등). 중국인은 공산화 후에도 중국문화를 고수하였고 그것은 문화혁명을 이겨냈다. 공산당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鄧의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게끔 되었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중국식 社會主義道路를 표방하는 鄧의 修正路線은 정치와 경제 두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주된 골자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정선부문을 주된 영도적 부문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것은 4원칙이나 3熱情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鄧의 修正路線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주의는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국문제의 해결은 중국문화의 기초 위에 자체적 형태의 문화를 건립하는데 있으며 孫文의 三民主義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30여년간 臺灣의 정책은 중국문화를 기초로 하는 三民主義가 그 성과에 있어 大陸의 공산주의를 능가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결국 中共은 공산주의 운동을 실제 전통중국 문화에 융합시키지 못하고 서로 충돌을 빚게끔 만들어 현실적 문제해결에 실패했던 것이다.

**王爾敏** : 이 논문은 사회주의에 대한 근대지식인의 태도와 수용양식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주의적 이상은 중국고대의 儒家와 道家의 政治退化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禮運篇에 나오는 儒家의 大同主義, 老子에 나타나는 道家의 小邦寡民은 모두 기회평등, 인위적 제도의 不在, 武

力の不在 등 세계의 이상적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 두개의 주장은 古代 정치제도를 추구하는 復古的 목표에도 일치하지만, 이상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현실에 나타나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근대의 사회주의는 淸日戰爭 이후 지식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지만, 사상의 내용적 소개에 그치고 만다. 즉 그것을 소화하여 완전한 자기 사상으로 體得, 形成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의 전통적 經典을 인용하여 소개하는 형태로 일반에게 전달되는데, 특히 禮運篇이 많이 인용되었다. 이처럼 사회주의 이념을 전통사상에 가미했기 때문에 중국 思想界에 널리 유포될 수 있었으며, 그같은 사실은 전통 經典에서 새로운 사상의 해석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지식인이 사회주의 사상을 구체적 제도로 어떻게 실현했는가의 문제는 대체로 급진적 주장과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章太炎, 康有爲 등은 완전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그러한 理想狀態의 묘사에 힘을 쏟지만 구체적 실행방법의 측면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근대지식인들은 서구의 사회주의를 소개하며 禮運篇과 같은 경전을 인용하지만, 그 인용도 앞부분에 치중할 뿐 이상세계로 돌입하는 실천방안을 기술한 후반부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지식인들의 공상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920년 이후 맑스-레닌주의가 도입되며 그 신봉자들은 단지 이 사상만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여타의 모든 사회주의 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하였다. 결국 중국적 사회주의 전통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인재 :** 현대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이념의 수용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전통사상의 하나인 陽明學이 맑스-레닌주의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며 또 어떻게 接木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공산주의 수용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논문을 서술하였다. 中共은 哲學史를 唯物論과 唯心論, 辯證法과 形耐上學의 투쟁사이며, 철학상의 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적대계급간의 이해충돌로

들어간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철학투쟁은 계급투쟁이며 그것은 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정치도구로서의 철학의 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王陽明은 心學의 완성자로 지칭된다. 그의 心學은 朱熹의 理學을 비판하고 陽象山의 心即理說을 계승하여, 孟子 이래 유가의 心學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中共學者들은 그를 主觀唯心主義의 集大成者로 보아, 그것은 필연적으로 唯我主義로 귀착된다고 평가한다. 또 그의 致良知는 인식론을 도덕수양의 수단으로 변조하고 봉건적 도덕을로서 사람의 사상을 가두어 두려고 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주계급에 부합되는 良知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계급의 대립을 말살 하였다고 본다. 결국 王陽明은 정치적 반동통치에 기여한 인물로, 知行合一이란 구체적 현실의 개조를 위한 행이 아니라, 知로 行을 대신하고 行을 통솔하는 主觀的 唯心主義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 討 論

신승하: 曹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자체에 나타난 여섯단계에 따라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단계는 공산당의 創黨과 그 초기에 걸친 시간이다. 創黨 이전에 이미 北京大學에서 맑스주의가 연구되었고 新青年을 통해 널리 선전되었지만 創黨의 참가자는 50여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원인은 생각보다 맑스주의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曹교수의 견해는?

두째 단계는 第一次 國共合作과 分列의 기간으로 이 때의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孫文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인식을 토대로 하는 공산주의 수용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中國國民黨 全國代表大會 기간중 레닌이 사망하자 3일간 追悼休會를 갖기도 했다. 이 점은 孫文의 폐년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孫文이 공산주의 수용에 긍정적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孫文의 民生主義를 공산주의 수용

의 한 예로 많이 지적하는데 孫文 생존시 民生主義와 맑스주의와의 관계, 死後 國民政府의 民生主義 해석에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다.

네째 단계는 抗日民族統一戰線의 형성부터 二次大戰의 終息에 걸친 기간이다. 이때 나타난 中國共產黨의 정책은 倒蔣, 殺蔣, 推蔣으로 변화하여 결국 第2次 國共合作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코민테른이나 스탈린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시의 변화를 만들어낸 원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단계는 이른바 毛의 시대로 이 분야는 정치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한다.

여섯째 단계는 鄧小平 時代이다. 鄧은 4個近代化를 표방하며 개방정책을 쓰고 있다. 4個近代化를 1860년대의 洋務運動과 비교하여 실패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洋務運動 시기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라 보기 어렵지만 曁교수는 4個近代化의 장래를 어떻게 보는지?

일반적으로 서구사상의 진래에만 관심을 갖고 중국사상 가운데 서구사상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는데 등한시한 지금까지의 많은 논문들과는 달리, 王교수는 儒家의 禮記 禮運篇이나 老子的 사상에 나타나 있는 社會平等主義와 無政府主義의 요소를 밝혀준 새로운 면을 보인다. 4개의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사상의 소개에 있어 社會平等이나 分配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지, 이른바 “主義”는 아직 제기하지 못하였다. 嚴復이나 譚嗣同의 경우에도 사회평등이나 분배문제는 언급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었다. 康有爲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를 사회주의 사상가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사상가였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연 중국근대사상에서 사회주의가 서양의 그것처럼 하나의 독립된 章으로 성립될 수 있겠는가?

둘째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03년 趙必振이 日本人 福井準造의 “近世社會主義”를 번역하면서 중국에 통용되었고, 1906년 民報에 共產黨宣言이 번역되며 맑스주의의 소개가 이루어졌다. 辛亥革命 이후 여러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때 徐企文의 中華民國工黨, 江亢虎의 中國社會黨도 등장하였다. 이들 정당과 맑스주의와의 관계는?

셋째 中華民國 건국초기에는 무정부주의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과 사회주의자와의 관계는?

네째 毛의 人民公社가 洪秀全의 天朝田畝制度와 비슷하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렇다면 毛는 洪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보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이는 毛의 사상 속에 공상적 사회주의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中共에서는 四人幫 이후 孔子批判이 줄어들었다. 역사일반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상이나 인물에 대한 관점은 中共의 집권층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中共이라 해도 시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권층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라 陽明學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학술의 연구단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또 王陽明에 그치지 말고 隆象山의 사상이 현 중국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李贄와 王陽明의 사상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길희성 :** 曹교수는 문화의 지속성과 변동성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공산주의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논문이 주는 인상은 중국공산운동이 실패하였다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의 실패를 의미하는가? 실패원인을 曹교수는 전통문화와의 단절성에서 찾았지만, 공산주의가 전통문화와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공산주의가 중국인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용한 이념 자체의 好意的 요소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재 臺灣이 채택한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중국전통사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王교수는 맑스주의가 수용될 수 있는 중국적 토양의 지적이라는 면에서 曹교수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단절성보다 연속성의 관점에서 역사일반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 논문도 그러한 시도와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중국지식인에게 본격적으로 인식되던 시기를 감안한다면 王교수가 지적한 嚴復, 康有爲 등의 인물은 공산주의를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직접적으로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중국고대의 유토피아적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보다 좋을 듯하다. 중국전통사상은 분류상으로 공상적 사회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맑스주의와 동일선상의 연장에 놓고 보기 어렵다. 또 王교수는 사회주의 속에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등 계반조류를 포함시키는 광범 위성을 보인다. 사회주의의 제조류도 보다 세분되고, 전통사상과 맑스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교수의 논문은 현재 陽明學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中共의 입장에서는 일단 전통사상의 청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 평가는 어쩔 수 없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중공이 보는 사상은 결국 계급이익의 반영이고,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기본관점에 비추어 볼 때 철학사의 서술에서도 객관적 진리의 규명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계급이익기반의 전통사상과 신사상의 대결로 전개된다. 문제해결을 객관적 현실 속에서 찾지 않고 의식 속에서 찾으려는 陽明學은 맑스주의자에게 전형적 비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答 辯

■伯一: 구체적 답변에 앞서 3가지의 기본관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고대사상은 다면성을 보이며 그 안에는 사회주의적 요소도 존재한다. 둘째 儒家의 정치관은 중용, 관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사상은 결코 공허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문제해결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사상의 가치는 民生問題를 얼마나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는 결국 문화의 포용성, 중용성, 실용성을 의미한다. 중국공산주의도 이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신교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겠다. 共產黨創黨時 참가인원이 적

다는 것은 서대숙교수의 지적처럼 중국공산운동이 지식분자의 주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지식인 사이에 퍼져있던 공산주의가 당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둘째 孫文과 레닌의 관계를 보면, 孫文은 레닌을 존중하기는 했으나 존경하지는 않았다. 정책상으로는 어느 정도 존중했지만 사상면에서는 존경을 하지 않았다. 맑스-레닌주의와 民生主義의 관계는 孫文의 民生主義 第1章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파악했지만 그의 1章 전반에 걸쳐 공산주의를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國民黨 속에는 많은 공산주의자가 있었고 孫文은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했지만, 공산주의이념이 확장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주의이념에도 民生主義는 있지만 그들의 民生主義는 사상적 관점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 불과하다. 반면 孫文의 民生主義는 사상으로서의 三民主義에 포함된 부분이다. 孫文 사망후 中華民國政府는 民生主義의 해석에서 教育和 樂을 강조하였다. 三民主義는 본래 民族主義 6章, 民權主義 6章, 民生主義 4章으로 이루어졌지만 中華民國에서는 民生章에 教育和 樂의 2章을 추가하여 全18章으로 만들었다. 셋째 당시 소비에트운동을 國民黨 立場에서 보면 土地改革을 통해 軍閥의 세력을 몰리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이는 第一次 國共合作 결렬이후 자주노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실패경험이 공산당 발전에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네째 第2次 國共合作 이후 倒蔣, 殺蔣, 推蔣으로 변화된 공산당의 전략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모스크바의 필요성이다. 즉 당시 소련은 동쪽으로는 독일의 침입위협, 서쪽으로는 일본의 침입위협에 처하여 자체방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는 파시스트 정책을 결의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抗日戰線을 지시한다. 中日戰爭이 일어나면 소련의 서쪽위협이 줄어들어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실에서 抗日戰線의 指導力은 國民黨

에게 있었기 때문에 연합전술을 지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국공산당 자체의 필요성이었다. 大長征 이후 陝西省으로 兵力을 옮길 당시 공산당의 병력은 1천 미만으로 자체적 실력증강의 필요성이 절박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蔣介石을 죽이기라도 하면 중국군대 전체의 공격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4個近代化는 人材問題, 기술수준문제, 관리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지 4개의 부문에 대해서만 현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사회불균형을 야기시키게 된다. 또 이는 국부적 변화이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洋務運動과 유사하다고 본다.

김교수의 첫질문은 중국공산주의의 실패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실패원인은 중국공산당의 義와 중국인의 義가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공산이념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중국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4個近代化는 중국공산당이 지지하지 중국인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공산이념이 중국문화의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공산주의가 계급투쟁을 버리고 전민족에 입각한 노선을 취하느냐에 해결책이 있다. 즉 공산당이 계급투쟁의 이론을 벗어나 전체민중을 위한 정권을 채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재 臺灣이 자유민주주의로 간다면 그것은 전통과의 연속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孟子의 사상 즉 民本思想이 민주주의와 연계성을 지니지만 증공은 전체민중을 위한다는 民本思想을 결여하고 있다.

**王麟敏**: 중국군대사에서 서구사회주의가 유입된 시기는 1895년경으로 無政府主義, 虛無主義 등의 사상조류도 이때 소개된다. 宋育仁, 嚴復 등은 그런대로 사회주의사상에 깊게 접근했지만 康有爲는 깊이가 없다. 지식인들이 중국전통사상을 인용한 것은 서구사회주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차적 논거로 인용되었지 중국전통사상 자체를 위한 인용은 아니었다.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 보면 중국전통사상은 거부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신교수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譚嗣同, 康有爲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사상을 접한 최초의 인물들 중의 하나이다. 1890년대부터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되며 사회주의가 하나의 사상으로 형성되며 이는 思想史에서 분명 독립된 무계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무정부주의도 포함된다. 1910년 中華民國 성립후 나타나는 많은 사회주의정당은 孫文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중국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에 지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신봉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여러 사상조류 중의 하나로 받아들였을 뿐 후일의 중국공산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毛의 人民公社와 洪의 天朝田畝制度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도 없고, 毛가 洪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도 의심스럽다. 中華民國 建國後 무정부주의자들은 숫자도 많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國民黨의 고위각료를 지낸 인물들도 많다. 이들은 거의 프랑스, 일본에서 유학했던 경력을 지니며 사회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정인재** : 신교수와 김교수의 지적을 바탕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완성된 논문을 만들겠다.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최인철** : 중국의 전통사상과 근대화사상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측면은 없는가?

**曹伯一** : 기본적으로 전통과 현대는 모순이 아니다. 현대는 전통의 기반 속에서 발전한다. 中華民國 建國初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중국근대화의 전반적 실시주장은 전통을 일시에 배척하는 파격한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발전은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견해는 이미 孫文이 지적했던 바이다. 현대화과정의 전통사상에 기반을 두고 실시된다면 이는 전통사상의 배격이 아니라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毛가 실시한 改革을 근대화과정의 하나로 본다면, 그것은 구질서나 전통을 일거에 배격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다.

**이광린** : 동양근대사를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화기신문의 논설에도 매일 사회진화론에 대한 기사가 실린다. 사회진화론은 단적으로 열등한 種의 도태이다. 한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체제부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열등한 체제의 도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주의사상의 전개에는 사회진화론의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5 회의

사회자 : 유세희

발표자 : 김순기 (Samuel S. Kim), 이홍영

토론자 : 최 명, 안병준

### 發 表

**Samuel Kim** : 이 논문은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나타난 중국가치관의 지속성과 변화, 즉 얼마나 많은 중국의 전통가치관이 제국주의침략을 통해 살아 남았고, 그러한 가치관이 毛—鄧으로 이어지는 공산정권하에서는 어떻게 변화, 수정, 발전되었는지 분석하려고 하였다. 외부세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국의 가치관의 “世界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중국인의 행위양태에 대한 근원을 설명해준다. 中華思想, 朝貢制度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전통적 외교관계는 그 특징이 내적 질서의 측면에서 정의, 실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전통중국은 사회질서유지의 두개의 기본 가치로 調和와 階序를 강조하였으며 외부세계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국내 질서의 연장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제국주의적 침략 앞에서 생존할 수 없었다.

毛의 가치관도 修辭의 측면에서는 전통중국의 그것과 유사하다. 도덕적 善의 관점에서 국력을 정의하는 면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

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毛의 지배적 가치관은 평등주의였으며,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권적 독립이나 호혜적 평등을 강조하였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투쟁, 부정, 의지중심주의(voluntarism)에 있다. 毛이후 중국은 가치관의 변용에 있어 3개의 단계를 거치며 실용주의, 실천, 實事求是의 강조로 이행한다. 鄧體制가 재정의한 毛思想의 요체는 實事求是, 大衆路線, 獨立保全이었다. 鄧은 毛의 신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현실문제를 해결할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홍영** : 본 발표에서는 毛체제의 일반적 특징 및 형성배경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틀 속에서 정치참여형태의 변화를 논하고자 한다. 毛체제는 최근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대두된 국가와 사회이론을 援用하면 한층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 첫째 毛체제는 국가의 정치권력이 사회 각 부문에 침투하여 모든 영역이 정치지배하에 예속되고 그 결과 사회의 자율적 영역이 상실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전통중국의 국가권력이 서양에 비해 폭과 심도에 있어 우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침투범위는 대체로 縣 수준에 그칠뿐 나머지 영역은 사회의 자율적 활동이 허용되고 있었다. 둘째 국가권력의 침투는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국민의 의사를 힘으로 억압하였다. 세째 국가정책은 사회의 특정계급이나 사회 자체와는 관련없이 국가에 의해 입안 추진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면 영구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급진적 정책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결국 사회에 대한 책임성 상실을 露呈시켰다.

毛체제의 형성배경을 알려면 현 中共의 권력자원(power resources)과 전통중국의 구조적 특징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전체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여 이단으로 규정되는 여타의 사상도 不容하였다. 또한 생산수단의 공유, 분배에 생산의 국가통제로 특징지어지는 경제력의 지배는 곧 사회의 物的 기반을 장악한 결과를 낳았다. 경제통제는 곧 경제를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엘리트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공산당은 엘리트의 장

악 및 통제에 성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군대와 경찰을 통제하였다. 한편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東洋은 정치권력의 중요성이 강했던 곳이다. 전통 중국에서도 국가권력은 경제력을 통제했고 공산당은 이러한 전통을 강화했던 것이다. 그 원인은 근대중국이 당면했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명된다. 즉 중국자체의 존속, 독립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형성되었고,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관념은 쉽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공산당에 참여한 과격파 지식인들은 새로운 정치형태의 창조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국가권력의 장악을 선결과제로 정했고 혁명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서구사상들 중 제국주의를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이 맑스-레닌주의였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상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급진적 태도가 大躍進運動 등에 전형적으로 반영된다. 영구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사회침투가 이루어졌다.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이, 경제력의 국가귀속으로 산업자본가들이, 농촌 집단화로 농민들이, 사상통제로 지식인들이 각각 정치참여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사회에 존재하던 모든 모순이 공산당 내부로 이행되었고, 모순과 파벌의 심화는 결국 문혁으로 귀착되었다. 정치참여형태의 변화는 바로 이 같은 복합과정 속에서 선명히 이해된다.

정권장악 투쟁기의 공산당은 광범위한 국민지지를 얻기 위해 그때까지 정치참여기회가 박탈되었던 서민층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정권장악에 성공하자 온건한 방법을 포기하고 毛가 정의하는 혁명이익을 사회에 강요하였다. 사회하층에서 충원된 공산당 간부들은 사회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당의 정책을 무리하게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타의 집단은 참여기회를 봉쇄당하였다.

결국 지금까지의 통제방법은 사회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고, 그 결과 통제를 완화하고 사회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한 유효정책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 討 論

최 명 : 두 논문은 모두 서구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 참여 등 개념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김교수가 지적한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될 수 있다. 중국인은 본래 논리보다 사변이 뛰어난 민족이지만 과연 세계관이라는 말이 옛부터 중국에 존재해왔는가? 辭典을 보면 世界라는 말은 꽤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世는 시간을, 界는 공간을 의미하며 世界란 곧 우주를 뜻한다. 그러나 세계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서양의 world view 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수용된 것은 아닌가? 또한 전통중국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관행에 과연 어떤 특별한 觀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통적 세계관이 김교수의 지적처럼 두 내적 인과관계의 투영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내질서의 유지라는 내적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교수는 중국의 가치관을 전통, 毛, 鄧으로 분류하여 고찰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동격으로서, 즉 분석단위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전통 가치와 毛思想을 대비시키는 것보다 毛 자신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鄧의 복권 이후 중공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과거의 정치우위(politics in command)가 경제우위(economics in command)로 이행했다고 하기에 는 문제점이 있다.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보면 항상 정치가 우선했고 단지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각시키기도, 하위에 두기도 했던 것이다. 中國史는 커다란 권력투쟁에 이념투쟁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이념이나 가치관의 변화 이면에는 권력변천이라는 투쟁의 측면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가치, 이념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毛時代와 鄧時代의 비교 타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鄧은 毛의 유산을 기반으로 지배하고 있다. 두 시대를 같은 비중으로

두기는 어렵다. 또한 鄧의 기본정책을 사회주의의 고수와 좌경적 요소의 제거라고 할 때, 毛와 鄧은 변화보다는 계속성을 강조해야 보다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교수가 지적한 毛체제의 권력기반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武力의 독점, 이데올로기의 통제 등은 과거 전체주의 모델로 설명되었던 점이다. 이교수가 말한 국가권력의 사회침투와 전체주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논문의 말미에는 엘리트의 갈등확대, 이익집단의 존재 등이 다소 지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毛時期에는 전체주의 모델이 타당하고, 그후에는 이익집단 모델이 타당하다는 뜻인가? 이교수는 중공의 최근경향으로 하위체제들(subsystems)의 자율성 확대, 공민권 확대, 엘리트 복귀 및 참여확대라고 지적하며 특히 첫째와 셋째 요소를 연관시켰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참여란 대중의 참여가 확대되고 대중의 이익이 보다 반영되는 형태를 말한다. 대중의 진정한 참여가 없다면 엘리트사회로 귀착될 뿐이다. 엘리트 참여확대라는 틀에서 정치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안병준** : 김교수는 중국가치관이 전통사회, 毛체제, 鄧체제를 거치며 변화하여 왔다고 지적했지만, 보다 거시적인 역사적 안목에서 본다면 그것은 분류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24개 중국왕조를 보면 질서와 혼란의 시기가 교체했고, 그에 따라 질서의 시대에는 儒家統治가, 혼란의 시대에는 法家統治가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毛의 경우 인간의 의지론중시, 교육중심, 사상개조 등 儒家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동시에 현실정치 측면에서는 법가적 요소도 뚜렷이 보인다. 결국 毛는 사고방식에서는 전통적이었지만 투쟁내용으로는 맑스-레닌주의적 계급투쟁을 설정했던 것이다. 中國史 자체가 보여주는 가치의 교체성도 사실상 상호공존성이었다. 가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타면 그만큼 논리의 설득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 毛體制와 鄧體制의 가치관변화는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중점가치가 어떻게 이행했느냐

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즉 같은 공산주의체제에서 중심가치의 변화양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교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통해 毛체제와 鄧체제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였다. 鄧체제가 지식인, 노동자, 과학기술자 등 사회세력의 자율성을 보다 강조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黨의 위치, 역할, 직능은 무엇인가? 앞에서 발표한 김교수는 鄧체제에서 가치의 세속화를 지적하였다. 중국은 옛부터 국가의 목적은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였다. 즉 禮에 따른 정치의 전개가 그 목적이었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무계급사회의 실현이다. 그러나 현 중공사회에서 가치가 세속화된다면 이같은 전통 이데올로기에 배치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요구를 재정의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 答 辯

**Samuel Kim** : 서구식 개념으로 중국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의 보편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동양의 사회과학, 서양의 사회과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 논문은 분석수준으로서 거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거시적 방법은 전체적 윤곽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한 단위체의 특징이 명확히 포착되는 장점을 지닌 반면, 특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양상을 알기 어려운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의 유용성을 결정할 절대기준은 없고 다만 연구자 자신의 취향이나 선택주제에 따라 방법론이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중국이 외부관계에서 표출하는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거시적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안교수는 시기적 폭이 좁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던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제국주의세력에 직면하여 표출된 시기가 19세기였기 때문이다. 즉 19세기는 전통적 가치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경험적인 검증사례가 될 수 있는 시간대였

다. 특히 전통가치관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적 요소였다. 滿族 淸은 중국 민족주의 발생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하에 가장 두드러진 가치관은 민족독립, 국가독립이었다. 이 같은 관점은 毛, 鄧에게도 계승된다.

**이흥영** : 서구적 개념의 援用問題는 해석과 자료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즉 보다 창의적 해석을 위해 자료나 개념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디서 援用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경우 개념의 借用은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借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교수는 경제우위 (economics in command)의 가능성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시간적 흐름과 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毛는 중국의 전통적 습관, 사고방식을 고치려고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에 그쳤다. 반면 臺灣의 경우 경제체제의 변화로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 장기적 경향으로 볼 때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곧 경제변화→사회변화→정치변화의 연속과정에서 시간적 폭을 넓게 확장하여 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우위의 가능성을 지적했던 것이다. 전체주의 개념은 적용범위가 스탈린, 히틀러 등에 국한되지 毛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같은 공산체제이지만 스탈린은 체제유지자인 반면, 毛는 혁명적 과제의 수행에 개인독재 측면을 결합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전체주의 개념의 毛 적용여부는 아직도 내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점을 밝혀 둔다.

관료엘리트의 이익취합(interest articulation) 기능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는 하위체계(sub-systems)들의 자율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이익의 제한적 다원화를 보이며 그들 사이의 이익갈등도 존재한다. 공산당은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엘리트층을 충원하고 이들 엘리트 위에서 존재한다. 엘리트는 공산당에 규합(co-opt)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표하는 부문의 이익을 전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공산당은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지나치면 엘리트층을 공격한다. 예를 들면 노조지도자

라고 해도 공산당에 노조이익을 취합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방책임자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을 취합전달할 수는 있다. 이익다원화의 한계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엘리트 내부의 이익갈등이 사회 각부분의 이익갈등의 직접적 표출은 되지 못한다.

毛가 국가, 사회, 경제의 구분을 하지 않은 증거는 그의 제도적 분화수준에서도 찾을 수 있다. 毛는 全人的 人間이라는 공산주의 이상에 따라 직능의 기능적 세분화를 고려하지 않고, 제기능이 혼재된 조직단위를 형성하였다. 중공이 현대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같은 미분화된 조직구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안교수는 현실문제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결국 이데올로기의 재정의의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고 본인도 이에 동감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내용은 달라졌으나 그 理想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줄어들어 체제의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

**길희성** : 중공은 49년에 건국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엘리트의 권력장악으로 귀착되었다. 이같은 현상이 이론상의 실패인가 아니면 중국의 특수한 구조적 상황의 결과인가?

**이 총** : 중국의 공산주의수용을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시켜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공산주의보다 앞서 수용된 민주주의사상은 토착화에 실패한다. 이것은 동양적 전제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중국의 구조적 상황이 공산주의수용에 연결되어야 할 요소가 아닌지.

李교수는 중국의 엘리트층원이 하층의 무식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엘리트의 반 이상이 지식인 출신이며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총

원되었다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흥영** : 중국 공산주의의 성패규정은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렵다. 어떤 각도에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세계적 조류를 보면 공산주의의 매력은 60년대를 기점으로 소실되었다. 이제 공산주의체제의 성패기준도 경제, 일반복지에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구성을 보면 공산당의 창당원로나 상층간부는 지식인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층이하의 간부, 특히 1950년대부터 간부가 된 사람은 게릴라전의 군인들과 토지개혁, 집단화작업의 열성분자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대체로 교육적 바탕이 낮고 재산이나 능력도 보잘 것 없다.

## 제 6 회의

사 회 : 최상룡

발 표 : 박충석

토 론 : 장달중

### 發 表

**박충석** : 본 논문은 189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운동, 사상, 이론의 수용양식을 고찰하려고 하였다. 사회개량운동, 노동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초기 사회주의운동이 맑스주의를 수용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片山, 幸徳은 사상적 전환을 통해 明治社會主義의 사회개량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고 直接行動論과 議會政策論으로 이행한다. 1922년 이후 일본 사회주의는 맑스주의를 일본화하는 이론적 시도단계로 접어드는 동시에 운동면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大正社會主義는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아나키즘, 國家社會主義, 無產階級

運動의 세가지 방향으로 分極化되지만 30년대에 들어서면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소멸하고 학문영역에 강한 영향력을 남기게 된다.

## 討 論

**장달중** :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수용이라는 이 회의의 주제에 비추어 왜 일본에는 맑스주의가 사상운동으로는 성공했던 반면, 실천운동으로는 실패했는가라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 한국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민족주의와 병행하였지만, 일본에는 역행했다는 점에서 부분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을 지닌 일본의 사회주의 수용연구는 방법론의 문제에서 또 다른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일본의 사회주의 수용연구를 사상논쟁중심으로 할 것인지, 개인적 인물중심으로 할 것인지, 혹은 운동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첫번째 방법을 채택하였지만 일본 사회주의의 성격상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사회주의운동은 21~24년, 25~29년, 30~32년 등의 주기를 그리며 융성과 쇠퇴를 되풀이하다가, 32년이후에는 운동으로서의 실천성은 사라지고 학제로 들어가 위력을 떨친다. 사상적 논쟁으로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片山, 幸徳의 구분은 문제가 없지만, 堺利彦는 幸徳의 직계제열이면서도 혁명론과 의회개량을 동시에 주장하기 때문에 성격구분이 애매하다는 점에 있다. 한편 당시 일본에 맑스-레닌주의가 크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지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맑스주의가 서구라는 선진국을 추적, 추월할 무기가 된다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에는 이미 1890년대에 접어들며 당시 미국사회주의자 Edward Belamey의 "Looking Backward"가 번역될 정도로 미국사회주의가 맹위를 떨친다. 그렇다면 초기의 사회주의와 明治, 大正 사회주의는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이 논문은 1930년대 초에서 종결된다. 그후 일본 사회주의운동의 조류를 보면 山川一福本の 대립이 코민테른 지시로 종식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山川의 노선이다. 山川의 노선은 일본공산당의 기본노선인 宮本 노선, 즉 대중주의노선으로 이어지지만 이 대중의 개념이 때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에서 진짜 공산주의자는 누구인가? 社會黨인가 共産黨인가?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주의 운동을 사상운동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 答 辯

박충석 : 일본의 사회주의운동이 사상면에서는 성공했으나 실천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은 이 논문의 결론에도 반영되어 있다. 방법론의 문제는 본인도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 결국 사상측면과 운동측면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내 자신의 전공이 사상사이기 때문에 전자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외의 지적은 앞으로 보다 심화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 제 7 회의 : 종합토론

사 회 : 전해중

토 론 : 참석자 전원

전해중 : 본 회의의 성과, 반성 및 평가를 위한 좋은 토론을 바란다.

김창순 : 이 회의는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수용을 韓, 中, 日 세나라에 국한시켰지만 아시아 공산주의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보다 광역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 공산주의운동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코민테른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하겠다.

서대숙 : 장달중교수는 일본 공산주의가 실천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지만 내 견해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득표율 7~8% 정도면 성공이다. 아시아 공산주의수용이라고 해도 공산당의 정권장악과정은 모두 다

르다. 북한은 몽고와 유사하다. 또 같은 공산국가라도 정권의 유지과정이나 당구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앞으로는 이같은 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비교분석의 단위를 잘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안병준 :** 운동과 사상은 상호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 구분은 난점이 있다. 그것은 또 공산주의 수용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공산주의 수용과 공산주의 정권장악과정은 다르게 나타나며, 일단 수용된 공산주의사상도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다.

**이홍영 :** 한국학자들이 세계 학계에 공헌가능한 부분이 바로 비교연구에 있다. 그러나 비교연구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의 몇가지가 우선 점검되어야 한다. 첫째는 자료의 다과, 신빙성이다. 둘째는 각국의 학문적 수준에 따라 연구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 및 인용도서의 질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문제의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분석에는 많은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공산주의가 구체적 수준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개별적 논문보다는 공동작업(work-shop) 형식이 더 좋을 듯하다.

**이광린 :** 이번 회의는 발표주제가 너무 컸고 그에 따라 개론적인 면에 치우친 감을 준다.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거나 혹은 대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소주제로 미리 세분하여 발표의 내실을 거두는 준비가 필요하다.

**최상용 :** 한국 공산주의 연구에 대한 두가지 구체적 제안을 하겠다. 하나는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사상적 성향연구이다. 한국 공산주의운동 연구는 史實的 내용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상연구는 업적이 거의 없다. 공산주의자의 성향은 크게 일본, 중국, 소련으로 분류되는데 각 성향별 참여자의 교육배경이나 사상적 내용을 비교연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南勞黨 연구의 필요성이다. 南勞黨은 남북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있지만 결국 우리 학계의 연구과제이다. 그것이 北에 학문적 충격을 주고

그들의 허구에 찬 실상을 밝혀줄 것이다.

**이병주**: 이 회의는 아시아 공산주의수용에 대한 개론적 분석에 머무른 느낌을 준다. 공산주의가 수용된 환경에 대한 연구가 없다.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韓, 中, 日 3국이라도 공산주의 수용배경은 다르다. 구체적 환경, 수용배경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 명**: 많은 토론자들이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본인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비교의 구체적 단위 또는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적 문제에 대한 지식축적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되기 쉽다. 그것은 개별적, 구체적 문제로 본인은 leadership의 연구가 꼭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세희**: 내실있는 비교연구를 위해 동아연구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제별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강인덕**: 연구에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산주의 관계자료는 여러 문제가 뒤따라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자료의 체계화 작업이 가장 심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센터가 필요하다. 한편 1920년대에 대한 연구도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시기는 현대와 과거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꼭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총**: 이 회의에서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대체로 역사적 접근법을 그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현대계에서 필요한 방법이지만 비교연구, 개념정립을 위해서는 방법론적 진전도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올바른 방법론 모색을 위한 회의도 있어야 하겠다.

## 綜 合

**전해홍**: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과 발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역적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12편의 논문은 한국관계 6편, 중국관계 5편, 일본관계 1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실 이런 실정으로 보아 몽고, 베트남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공간적 폭의 확대에는 보다 많은 연구축적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내용면으로 보아 韓, 中, 日 공산주의수용에서 전통사상과 공산주의수용의 관계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방면의 연구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운동의 전개연구에는 민중일반과 결부시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헌, 자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일반의 기록보존 소홀풍조와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꼭 해결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헌, 자료의 해석문제이다. 이 데올로기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듯 이론이 실천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문헌의 다과 못지 않게 해석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석의 다양성도 잘 생각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회의성과의 축적이다. 우리 학계에는 특정주제를 둘러싼 회의가 수십차례 반복되어도 그 앞의 성과를 반영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공산주의관계 심포지움이 수십차례 있었지만 이 회의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개념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성과의 축적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상우 : 이 회의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자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이 문제의식은 앞으로 다가올 21 세기가 과연 과거의 피동적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인가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에서 피동체로 움직여오다가 이제야 숨을 돌리고 눈을 떠 앞을 보게되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도 서양인과 같은 공헌을 할 수 없는가, 東西의 융합이 만든 결과가 오히려 훨씬 더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발단이 되어 일련의 회의를 기획하였다. 그것은 수용시리즈로 명명되었고 앞으로 주제별로 심도있게 개최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회고와 전망이 결합되어 結晶化될 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서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를 더듬 돌로 앞으로의 동질성 회복을 꾀하자는 데 두었다.

회의가 시간적 폭의 광범위성과 지역적 협소성 때문에 좁고 산만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성과 앞으로의 조직적 구성의 필요성을 동시에 느낀다. 서양이 동양에 들어온 시기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시간폭은 150년에 이르기 때문에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산만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회의에 동남아시아를 포함시키기에는 우리 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시작부터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3편의 논문을 배정했지만 일본측 참석예정자의 불참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빚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토론에서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많이 지적되었지만 그것은 개별연구가 깊이 진행되어야 가능하다. 앞으로는 개별적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적 조건에 못지 않게 내적 조건의 규명도 중요한 연구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본래 이 회의는 내적 조건의 규명으로 한정하려고 하였지만, 그러기에는 연구업적의 축적이나 연구역량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두겠다.

이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에는 연구소의 능력이 제한되어 앞으로는 2년 1회를 예정이다. 그러나 동아연구소의 월례발표회, 교수간담회를 통한 지속적 연구를 약속한다. 지금까지 발표, 토론된 내용은 『東亞研究』 第7集에 게재될 예정이며, 이같은 연구성과가 축적되면 全集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들동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